

오순절 후 여섯번째 주일 예배

THE WORSHIP SERVICE OF 6<sup>TH</sup> SUNDAY AFTER PENTECOST

주후 2022년 7월 17일 오전 10시  
인도: 김일선 목사

*입례 찬양 Opening Hymn	“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”	다같이
*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*찬 송 Hymn	542 장 “구주 예수 의지함아” (통일 340)	다같이
*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	29 번 시편 65 편	다같이
*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		다같이
*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		인도자
*송 영 Gloria Patri	643 장 “세번 아멘” (통일 555)	다같이
*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		다같이
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		김재우 장로
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	<b>출애굽기 (Exodus) 7:1-13</b>	채희원 집사
찬 양 Anthem	“그 사랑 크고도 놀랍네”	찬양대
설 교 Sermon	<b>“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” (Aaron’s Staff Swallowed up Their Staffs)</b>	김일선 목사
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	“십자가 그 사랑”	다같이
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		다같이
봉 헌 Offerings		다같이
*송 영 Doxology	317 장 “내 주 예수 주신 은혜” (통일 353) 1 절	다같이
*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		다같이
교회 소식 Announcements		인도자
*찬 송 Hymn	433 장 “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” (통일 490)	다같이
*축 도 Benediction		김일선 목사

\*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stand if you are able.

고백의 기도

(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,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)

다같이: **거룩하신 하나님,**

성경은 우리에게 “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,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라”고 권면하지만,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즐거움을 좇았고,

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도 못했습니다.

이 시간, 우리의 그릇된 신앙과 교만하고 죄악된 삶을,

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,

**“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,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.”**

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죄악된 속성에서 돌이키며,

더 이상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,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.

그리하여,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았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,

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좇으며 사는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.

**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**

(\*엡 4:22-23)

오늘의 성경/말씀 TODAY'S SCRIPTURE

“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.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와의 말씀과 같더라” (개역개정 **출7:12-13**)

“Each one threw down his staff and it became a snake. But Aaron's staff swallowed up their staffs. Yet Pharaoh's heart became hard and he would not listen to them, just as the LORD had said.” (NIV **Exodus7:12-13**)

매/일/성/경/읽/기 DAILY BIBLE READINGS

날짜	7/17 (주일)	7/18 (월)	7/19 (화)	7/20 (수)	7/21 (목)	7/22 (금)	7/23 (토)
본문	수24	삿1	삿2	삿3	삿4	삿5	삿6
	행4	행5	행6	행7	행8	행9	행10
	렘13	렘14	렘15	렘16	렘17	렘18	렘19
	마27	마28	막1	막2	막3	막4	막5

수/요/ 찬/양/집/회 토/요/ 새/벽/기/도/회

수요 찬양집회 (7/20수 오후7:30)	“나의 약함, 주의 은혜”(고후12:1-21) – 이성우 장로
토요새벽기도회 (7/23토 오전6:30)	“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”(요15:1-17) – 김재우 장로

지난 주일(7/10) 말씀 – 박상용 선교사

“복음의 증인” (눅 22:44-49)

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. 예수님의 지상 사명은 신약성경에 5번 나타나는데, 4 복음서에 4번, 그리고 사도행전에 한 번 나타납니다. 오늘 본문 49절에서 “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”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에 나오는 “내 증인이 되리라”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서, 이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마지막 권면이기도 했습니다. 왜냐하면,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지만, (결국) 복음을 증거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? 1)첫째는,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인데,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고(눅24:46-47) 2)둘째는,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? 복음 전파의 범위로서 이는 곧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까지 이며(눅24:47-48), 이처럼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신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(참고 창22:18, 행1:8). 그래서, 예수님께서서는 “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”(눅19:10)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마지막 3)셋째는,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실제로서, “전도는 세 사람과의 대화”라는 말이 있듯이, 복음을 전하는 자와 전도를 받는 자,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. 즉,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야만, 복음을 듣는 자가 거듭날 수 있고,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, “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”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,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,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
설/교/ 메/모